전북공대 '산업인턴 지원사업' 선정

〈지역 중소기업 R&D〉

6개월 도내 중소기업에 파견, 취업역량 강화… 1인당 총 900만원의 교육 실습비 지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학장 김철생)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산학협력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대 학생들을 6개월 동안 기업에 파견, 현장연수와 실습을 통해 R&D 실무능력 확보와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015년 1단계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전남대와 제주대, 전북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 재선정 돼 올해부터 3년 동안 17억4천600만 원의 정부 지원과 대응자금 등 모두 19억2천만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중소기업 인턴과 취업 등을 돕는다.

이에 따라 전북대 공대는 내년 2월 졸업 예정 학생들을 도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파견해 산업인턴 연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인턴으로 기업에 파견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6개월간 총 900만원의 교육 실습비를 받게 되며, 계절학기와 2학기 동안에 최대 24학점(일반선택)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6개월 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학생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교육 실습비 전액 정부 보조로 R&D 실무역량이 높은 학생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경산전, 대우전자부품, 비나텍, 원진알미늄, 호룡 등 30여 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전 사업에 참여해 우수인재 확보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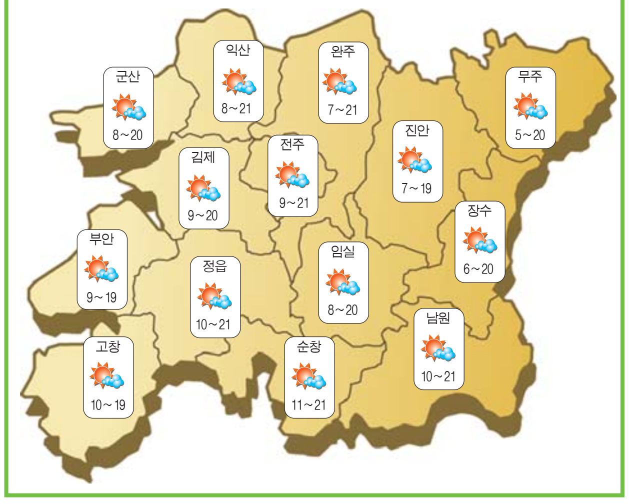
2단계 사업 3년 동안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 확보가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15인 이상, B등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철생 공과대학장(전북대 산업인턴 지원사업단장)은 "대학과 지역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우리 전북 발전을 선도하고, 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4월 25일 수요일 해뜸 05:47 | 해짐 19:13 달뜸 14:16 | 달짐 03:04

날씨 대체로 맑음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명소로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뒤편에 조성된 완산공원 꽃동산이 봄철을 맞아 겹벚꽃과 철쭉, 황매화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면서 봄나들이로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공원 꽃동산은 한 시민이 40여년 동안 열정과 정성으로 철쭉 등 꽃나무를 심고 가꿔 온 곳으로, 현재 약 15,000㎡(4,500여평)의 면적에 철쭉과 왕벚나무,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수목 10,000주가 식재돼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 시민의 땀과 열정으로 조성된 꽃동산은 매년 봄 화사한 봄꽃이 장관을 연출하면서 점차 입소문을 타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으며,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09년 소유권이 전주시로 이관됐다.

이에, 시는 토지와 꽃나무를 매입하고 구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정자,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특히, 완산 꽃동산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바람에 흩날려 떨어진 겹벚꽃잎과 활짝 핀 철쭉이 조화를 이뤄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봄나들이를 즐기는 상춘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한옥마을을 찾았다가 꽃동산에 왔다는 중국인 이군 씨는(46) "부모님과 함께 전주를 방문하였는데 도심 속 가까운 곳에 이렇게 꽃동산을 방문할 수 있어 전주 여행의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뒤편에 조성된 완산공원 꽃동산이 봄철을 맞아 겹벚꽃과 철쭉, 황매화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면서 봄나들이로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학력자문단 1차 협의회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의 학력신장 협의체 중의 하나인 참학력자문단 1차 협의회가 지난 23일 오후 4시 도교육청 7층 참학력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참학력 자문단은 도내 교대, 사대 학장들과 도내 초·중·고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되어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연 4회 자문협의회를 통해 전라북도 학력과 참학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학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학력 자문단은 그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내 교대, 사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배움과 성장의 수업한마당' 등 교육행사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하여 학교혁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대입체제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관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학력' 논의를 공유하며 대학의 연구와 학교 현장 연계 방안, 지역교육과정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고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미래형 학력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참학력으로 명명하였다. 참학력은 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력으로 기존의 입시를 위한 성적중심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지성, 인성, 시민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학교에서의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력이다.

도교육청은 참학력을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자기관리 능력, 소통·참여 능력, 생태·문화 감수성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기자

군산동산중 신설대체 이전계획 최종 승인

지곡동에 25학급 720명 규모 2021년 개교… 연안초 설립계획은 재검토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군산동산중학교 신설대체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적정), 군산 페이퍼코리아공장 이전부지 내 가칭 연안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 중학생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계획은 지난 해 12월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학교위치 재검토)을 받았으나, 이번 4월 12일 개최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조건 없는 승인(적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산시 중학교 균형 발전 및 신도심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설립될 군산동산중은 총 310억원을 들여 군산시 지곡동 1만5,970㎡부지에 25학급(특수 1학급 포함) 720명 규모로 지어지며,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다.

다만,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부지 내 가칭 연안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설립시기 조정 및 개발지구 인근 학교설립계획 종합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덕진구, 위기가구 복지정책 적극 추진

덕전주시 덕진구에서는 갑작스러운 문제로 생활이 곤란한 자가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는 4인기준 월117만원, 주거비는 42만원 정도 지원되며, 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부가급여로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긴급지원이나 공적복지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는 직접 방문상담 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생활안정 방안을 찾는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